

제 197 회 일본 전문가 초청 세미나

주제: 베르사유평화조약과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 그리고 한일관계의 교차점

강연자: 김송배(金崇培): 연세대 정치학 박사

일본 오사카출신의 재일교포출신으로, 일본 간세이가쿠인대학(關西學院大學)의 법학부를 거쳐 한국 연세대학교 정치학과에서 석사와 박사를 마치고 현재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에서 전문연구원으로 재직중인 김송배 박사의 “베르사유평화조약과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그리고 한일관계의 교차점”이라는 주제의 세미나가 5 월 10 일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에서 열렸다.

박사논문에서 평화체제에 대해 다루었던 김송배박사에 따르면, 평화조약이라는 것은 고대의 카데시 전투에서도 존재했었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이는 현재 국제연합(UN)에서도 보존하고 있는 등 매우 중요시되고 있는데, 다수의 국가가 참여한 조약으로서 베스트팔렌평화조약, 제 2 차 파리 평화조약 등도 역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조약들이다. 오늘은 강연에서는 이러한 평화조약들 중에서도, 제 1 차 세계대전 이후에 체결된 평화조약인 베르사유평화조약과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이다.

베르사유평화조약을 먼저 살펴보면, 베르사유평화조약은 동서양을 초월한 공간을 상정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는 베르사유평화조약이 독일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 뿐만 아니라, 국제연맹 가맹국들의 영토보전과 정치적 독립을 보장하면서 집단안보체제를 확립시켰다는 점에서 특이하다고 볼 수 있다. 이때, 이 조약에서 규정한 만로주의에 대해 “아시아 만로주의”가 대두하게 되었다. 여기서 아시아 만로주의란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일본맹주론적 외교정책으로서 1931 년 만주사변이후에 일본의 정책 중 하나로써 고려되었다. 당시 일본이 아시아-만로주의로서 아시아를 대표해야한다는 의견은 세계 5 대국가가 된 일본에게 있어 매력적인 아이디어였다고 생각된다.

김송배박사는 1905 년 시어도어 루즈벨트가 향후 일본이 정책적으 아시아에 대해 만로주의를 채택할 것을 권한다고 언급했던 것은 러일전쟁이 한반도를 둘러싼 전쟁이었다는 점을 볼 때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하였다. 이러한 인식에 관해 한국에서는 많은 비판들이 있었는데, 여운형, 반은식, 김규식을 포함한 많은 인물들이 아시아-만로주의에 대해 비판했다는 사실을 볼 때, 일본의 정책적 아시아-만로주의는 당시 한국에게 매우 민감한 사항 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서 평화조약에 대해 살펴보는 것에 있어 한가지 더 중요한 개념이 “민족자결”인데, 한국에게는 모든 민족은 국가를 세울 수 있다라고 언급한 윌슨의 논리가 레닌의 민족자결보다 더 파급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이러한 민족자결은 많은 식민지의 국민들에게 조선의 3.1 운동을 포함한 많은 독립운동의 동기를 부여했다는 점에 그 중요성이 있다. 하지만 레닌의 공산주의도 상당한 매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는 당시의 공산주의는 억압을 받고 있는 국가들을 풀어주어야 한다 등의 주장도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베르사유평화조약과 전쟁책임성에 대해 살펴보면, 일본은 강대국들이 결정한 배상위원회에서 배제되어 있었는데, 이는 세계 5 대국가로 부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서구국가들에 의해 무시당했던 일본의 현실을 보여준다. 또한, 일본은 일본의 천황제에 영향을 끼치는 것을 염려하여 독일황제의 전쟁책임에 대해서는 상당히 회의적이었다. 반면에 한국의 상황은 이승만 등의 인물들이 일본의 만행을 호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전승국의 일원이었다는 사실 때문에 일본에게 책임을 요구 하는 것조차 불가능하였다.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1951)으로 넘어가면, 김승배박사는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배경적 국제조약은 1945 년도의 국제연합헌장으로서 특히 지역적 약정 또는 지역적 기관을 허가한다는, 다시 말해 지역주의를 허가한다는 내용의 52 조 1 항에 주목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샌프란시스코조약을 연구할 때 많은 사람들이 미일안보조약까지 동일선상에 놓고 생각하는데, 이 조약은 일본이 하나 또는 두개 이상의 연합국과 조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함으로서 미국과 조약을 체결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미국은 일본을 아시아의 중심으로서 자신의 지배하에 놓고 싶어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북태평양 6 개국 조약안에서는 일본국은 육해공군의 어떤 전력도 보유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는 대한민국에도 같은 내용을 적용한 2 조였다. 여기에는 두가지 가설이 있는데 첫째로, 한국이 공산화될 가능성, 둘째로 한국에 대한 경계심이다. 사실 이 조약이 체결되었을 때 미국은 한국을 중심으로 통일한반도가 생길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고, 일본은 이에 대해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한국의 관점을 살펴보면, 한국이 1953 년의 한미상호방위조약을 하는 것에 있어 생각한 것은, 공산주의세력에 대한 경계심과 일본에 대한 경계심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의 영토성에 대해서는, 일본이 한반도에 대한 잔여주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다시 말하여 1951 년, 국제사회가 한반도의 분리를 인정해야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이 한반도분리를 인정해야한다는 의견이 있었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1919 년과 1951 년이라는 시대는 1919 년에 식민지를 금지했지만 이미 서구국가가 식민지로서 보유하고 있던 영토는 보장되었다는 점을 볼 때, 국제주의 속에 제국주의가 여전히 잔존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조약들은 식민지 문제를 위한 것이 아닌, 전쟁의 결과로서 패전국을 위한 조약이었기 때문에, 한국에 대한 언급의 누락은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김승배박사는 베르사유평화조약은 징벌성은 있었지만 실시되지 못한 점,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은 관대성은 있었지만 처벌이 실제로 실시되었다는 점에 있어서 상당한 의미를 갖는다고 하며 강연을 마무리 지었다.

#질의응답

질문: 베르사유조약체제가 나온 시점에서 한국의 독립운동가들은 이 조약의 이상주의적 측면만 보고 단순히 들떠 있었는지, 아니면 유럽의 현실을 보면서 현실성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북태평양 6 개국 조약에서 대한민국이 일본의 관념 속에 한국에 대한 경계심이 있었을 것이라고 해석해주셨는데, 당시 요시다의 머리 속에서 보다 크게 자리잡고있었던 것은, 미국에 대한 반격으로 접근해야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답: 역사적으로 인류는 전쟁에 대해서는 많이 생각해 봤지만, 식민지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한 적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은 앞으로 세계에 식민지가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더 공부해야 할 것 같습니다. 6 개국 조약에 관해서는, 한국은 요시다 시게루에 대해 좀 더 연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이 이승만을 연구하는 방식으로 한국은 요시다 시게루를 공부해야 하는데, 이는 요시다가 마키노 노부아키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1910 년 당시에도 일본에게 있어 한국보다는 중국에 대한 고민이 더 많았고 중요했다고 생각됩니다. 거기에서 당시 요시다가 한국에 대해 어떤 생각을 했는지도 기록이 많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이 식민지에 대해 별다른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점은 아쉬운 점으로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에서 발의하는 주체로 참가한 나라에는 어떤 나라가 있고, 거기에서 한국은 참여했는지, 독립에 관련해서 언급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답: 양유장은 달레스에게 찾아가 직접 한국이 체결국으로 들어가면 좋겠다고 주장하는 등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달레스는 일본내의 재일교포는 대부분이 공산당쪽이기 때문에 한국을 인정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인정하지 않았는데, 사실 이는 요시다시게루가 먼저 달레스에게 말했던 내용이었습니니다. 거기에서 한국은 일본과 전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서명국이 될 수 없다고 하지만, 사실은 1 차세계대전에 폴란드 등 전쟁을 하지 않고 참여한 예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한국에는 당시 2 개의 사상이 공존했기 때문에 한국을 넣는 것은 조약의 성격과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것이 아닐까 하고 생각합니다.

질문: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이 한일관계에 긍정적이라고 생각하나요?

답: 긍정적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게, 한일관계를 규정하고, 국교정상화도 하는 등의 모습을 보였지만, 내용을 보면 샌프란시스코조약이 한일관계의 위에 존재해서 한일관계에 있어 더 이상의 진보를 불가능케 하는 역할을 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